‘대입 정보전’ 시작,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
정지영 선생 (북일고 국어교사)



수능이 끝나고 정시모집 접수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확대로 정시보다 수시에 무게를 두는 학생이 많은 가운데 정지영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북일고 국어교사)은 “정시를 쉽게 봐서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단언한다. 수시에서는 전형이 다양한 만큼 내신 대학별고사 비교과활동 등 평가요소도 다양해 자신의 강점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반면, 정시에선 학생부와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까닭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기 때문이다. 국어교사이면서도 다년 간 대학 입학사정관 자문위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입시공력을 쌓아온 정 선생은 “자신의 능력, 성적 속에서 유사한 수준의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이 정시”라며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한다. 내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대학별 반영률 · 환산점수는 어떤지, 영역별 조합과 가산점 여부 등을 파악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시보다 전략 중요한 정시 … 정보격차가 당락 갈라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 ‘상향’ ‘하향’ 모두 지원해야

수시 미등록 충원 현황 주시해야

정지영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북일고 국어교사)은 올해 정시는 더욱 치열한 ‘정보전’ 양상을 띨 것이라 전망했다. 올 수능 역시 쉬운 수능 기조로 변별력을 가리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시 미등록 충원’ ‘정시 선발 인원 감소’ 등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수능이 쉬우면 쉬울수록 정시지원은 더 어려워진다. 수험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중상위권 학생의 상향지원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권의 안전하향지원과 겹치게 된다는 말이다. 수능이 쉽기 때문에 대학들은 영역별 가산점 등 세밀한 부분에서 변별력을 가리게 되며 표준점수 변화도 상위권 지원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까지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전국 79개 대학 인문 자연계열 정시 이월인원은 1만7416명으로 정시모집 전체 응시자(7만2401명)의 24.05%에 달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올해 양상은 다르다. 수시 충원합격자의 정시 지원이 금지되었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빠져나갈 전망이다. 정 선생은 “동시합격자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요 대학별 커트라인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상당수 고득점자들이 더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쉬운 수능’이라고 무작정 안전하향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소신상향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학별로 촘촘하게 파악하라

모든 대입전형이 그렇겠지만 정시는 유달리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 대학별로 자체기준에 따른 백분위나 환산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1등급이라도 영역별 반영방식 및 비율이나 가산점 여부에 따라 최종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다.

정 선생은 “성공적인 정시 전략은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단순히 원점수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 동점자의 숫자와 시험의 난이도를 유추할 수 있는 환산점수까지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무슨 영역이 취약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언수외탐을 모두 반영하며 중상위권 대학은 모집단위에 따라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영영역 수가 적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험생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선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분석한 후엔 희망 대학별 전형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수능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영역별로 가중치가 있는지,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기본적으로 파악해둬야 하며 학생부 반영 비율, 반영과목, 대학 환산점수 계산 방식 등을 살핀 후 동점대 학생들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 선생은 “특히 대학별 탐구영역 반영 방식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요대학이 언수외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반면 탐구과목만큼은 백분위 성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정 선생은 “제2외국어영역과 한문 점수로 탐구과목 대체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학별로 대체 여부도 다르며 백분위로 대체하는지, 자체표준점수로 대체하는지 여부도 다르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탐구과목의 제2외국어영역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지역 30여 개 주요대학 중 20개 대학이 제2외국어영역과 한문을 탐구영역에 반영한다. 인문계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흔한 반영 방식이다. 몇몇 대학은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도 반영이 가능하다. 단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은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에서도 제2외국어영역과 한문을 반영하며, 심지어 고려대는 자연계 전 모집단위에서 탐구 과목을 제2외국어영역과 한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희망 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도 중요하다. 반영비율이 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최종 대학환산점수도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 선생은 “희망 대학 중 자신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온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인문계열은 주로 언어와 외국어의 반영비율이 높으며 자연계열은 수리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등 인문계열에서도 수리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문계열 수리영역 비중이 큰 주요대학으로는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있다.

‘소신’ ‘상향’ ‘하향’ 하나씩은 가져라

정 선생은 “지난해 정시모집은 한 마디로 ‘혼돈’이었다”고 말한다. 쉬운 수능 기조로 변별력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안전하향지원을 했던 것. 그 결과 최상위권 상위권 주요 학과 커트라인은 대폭 감소했으며 비인기학과 커트라인이 대폭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자연계열의 일부 학부와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모집단위 경쟁률이 하락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의 경우 2011학년엔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3.02대 1로 대폭 하락했다. 고려대(3.78대 1) 연세대(4.27대 1) 이화여대(3.34대 1) 등도 마찬가지였다.”

대입은 ‘정보전’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를 취하기보다는 정보를 선별하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정 선생은 “대입 정보를 무작정 많이 알아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 인터넷, 학원 등 정보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무한하다. 그 중 자신의 강점에 맞물리는 정보만을 추려낼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체의 보도나 학원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올인해서도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대부분 학생들이 재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향지원할 것’이라거나 ‘올해 역시 하향지원 추세이므로 과감하게 상향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되며 대학별 학과별로 지원 추이를 파악한 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학지도를 할 때 항상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개의 티켓이 있다고 볼 때 하나는 무조건 하향지원하는 것이 좋다. 소신지원이 좋다고는 하나 다 떨어지면 1년을 또 고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개 티켓으로 성적에 따라 상향지원이나 소신지원하면 된다.”

올해 수능에선 과탐 선택자는 증가했으나 수리 ‘가’형을 응시한 학생은 감소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



정지영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북일고 국어교사)은 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방 학생보다 도시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도 정보력 격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다. 정 선생은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면서 "단순히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동적으로 찾지 말고 능동적으로 영역별 강점을 분석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사진=신승희 기자 blog.veritas-a.com/pablo

◆약력

- 동국대 국문과 졸
-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전문 훈련 및 양성 과정 이수
- 현 북일고 교사
- 현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입학사정관 자문위원
- 현 충남진로진학지원단 비전&드림활동
- 전 UNIST, 동국대 입학사정관 자문위원
- 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대교협중앙상담교사단 소속
- 창비 문학 교과서 집필(2010)
- 문학교과서 작품 읽기(수필/극) 엮음(2011)

다. 인문계열에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산점을 노리고 교차지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사탐 응시인원은 지난해 39만9683명에서 37만5891명으로 줄고 과탐 응시인원은 지난해 25만1734명에서 25만804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리 '가' 형을 선택한 인원은 지난해 16만2113명에서 올해 15만3473명으로 8640명 감소했다. "교차지원을 할 때는 대학별 수리, 탐구 유형 지정과 가산점에 유의해라. 수리 '가' 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이 있고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가천대 단국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등이 있다."

/옥창한 기자 chok@veritas-a.com

▶ [입학사정관제 대비전략] 학교수업 연계해 자신만의 활동 찾아라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의 입학사정관 자문위원을 지내며 '수시 입학사정관제' 에도 일가견이 있는 정지영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북일고 국어교사)은 "사정관제 준비는 학교생활 내에서 할 것"을 권했다. 화려한 비교과활동 경험을 위해 억지로 '스펙' 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화려하고 다양한 활동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 만들기가 중요하다. "사정관제의 본질은 결국 모두 학교생활 안에 있다. 세간에 사정관제도 결국 내신으로 당락이 갈리지 않냐는 비난이 있지만, 내신이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교육을 배제하고 학업 충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치기 때문이다. 다만 내신이 당락을 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내신은 기본조건일 뿐이다."

사정관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 공부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는지' 다. 동아리, 스터디그룹 활동 등을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드시 해당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선생은 "경영대를 꿈꾸는 학생이 문학 시간에도 자신 나름의 스펙을 만들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왜 활동을 하게 됐는지, 활동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꿈과 관련된 역량을 키워낼 수 있었는지"라고 말했다.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꿈과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 후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단순히 대입을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지 마라.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특히 스터디그룹이나 동아리 등 단체 활동은 리더십과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는 무한한 활동의 보고다. 때로는 학교 선생의 도움도, 때로는 대학 교수의 도움도 얻어봐라. 활동을 통해 실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재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아직 어린 나이다. 꿈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는 법. 단술에 배 부르려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 선생은 "향후 장기 계획도 세워보라"고 권했다. 단순히 대학 입학 후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보라는 얘기다. 정 선생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짜보라는 얘기"라며 "예로 회계사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경영대를 나와 회계사가 되고 싶다' 보다 '어느 분야 회계를 하고 싶고 이를 위해 어느 학과에 들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라고 조언했다.

▶ 북일고 특성화 프로그램

정지영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진학연구위원(북일고 국어교사)이 재직하고 있는 북일고는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인 북일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최근 주목해야 할 학교로 부상하고 있다. 정 선생은 "수시 사정관제 비중이 증가하며 전공적합성과 로드맵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북일고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북일고는 지난 9월에 전국 50개 자율고 가운데 교과부가 선정한 '최우수 자율고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 로 선정되기도 했다. "북일고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진행되는 일반적인 '창체활동' '과제연구활동' '방과후 활동' '동아리 지원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한 덩어리로 묶어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일고는 과제연구활동으로 경제, 인문, 역사 · 철학, 자연과학 등 10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매주 한 번씩 특강을 연다. 또 매주 2시간씩 연구수업을 통해 특강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포트폴리오 · 논문 작성법도 가르친다. 대학과 연계하는 R&E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희망학생 대상으로 단국대 공주대와 연계한 R&E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기중에는 주말을, 방학중에는 평일을 이용해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학습을 하고 고급 실험을 통해 프로젝트를 연구한 후 논문을 작성한다. 창체활동으로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한 번씩 어린이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 30여 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 봉사활동 장소로 학생을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등 학교가 학교 밖 생활까지 케어하는 특색이 눈에 띈다.

동아리 활동은 다른 활동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 선생은 북일고 동아리 '하이웨이' 를 예로 들었다. 하이웨이는 언론 경제 정치 역사 네 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종합 동아리다. 시사토론 모의국회 경제포럼 등 관심 있는 사회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교내 및 교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하이웨이 부원들은 함께 모여 관심분야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각자 과제연구활동과 방과후 활동을 통해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자신만의 로드맵' 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예로 한 학생은 동아리에서 처음 경제학 이론을 공부한 후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자 방과후 활동인 '경제경시반' 에 들어가 테셋(TASAT)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치고 난 후 느낀 점과 의문점 등을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토론해 정리했다. 정리된 결과물은 과제연구반 포트폴리오 내용에 포함시켰다. '경제학' 이라는 관심분야 활동을 학교생활을 통해 한 줄로 꿴 것이다."

▼ 2012 주요대학 정시모집 커트라인

대학명	구분	커트라인(주요학과 기준)
경희대	가군	인문 경영 532 자연 한의예 548
고려대	가군	인문 경영 542 자연 의과대 548
동국대	가군	인문 경찰행정 535
서강대	나군	인문 경영, Art&Technology 541 자연 화공생명공학 526
서울대	나군	인문 경영 544 자연 의예 552
서울시립대	나군	인문 세무 540
성균관대	가군	인문 글로벌경영 541 자연 의예 549
연세대	가군	인문 경영 542 자연 의예 550
이화여대	가군	인문 스크랜튼 539 자연 분자생명과학 521
중앙대	가군	인문 글로벌금융 536 자연 의예 546
한양대	가/나군	인문 정책(가) 539 파이낸스경영(나) 540 자연 의예(가) 546 융합전자공학(나) 530

▼ 2013 수리 '가' 형 가중치 부여 대학

* 자료 = 서울시교육청

가중치	대 학 명	모집시기	계 열
20%	서울과기대	가/나/다	그룹
15%	건국대	다	자연
	경기대	가/다	그룹
	동국대(서울)	가/나	자연2-1
12%	숭실대	가/다	그룹
10%	광운대	가/다	공학, 그룹
	국민대	가/나/다	그룹
	단국대(죽전)	가/나/다	그룹
	동국대(서울)	가/나	자연2-2, 3
	명지대	나/다	그룹
	세종대	가	공학
		나	그룹
	숙명여대	가/나	통계학, 그룹
	안양대	나/다	그룹
	인하대	가/나	공학, 의학, 기타

가중치	대 학 명	모집시기	계 열
10%	한국외대	가/나	그룹(자연)
	한국항공대	나	그룹(공학)
7%	아주대	가	그룹(자연2)
		다	e-비지니스
5%	가톨릭대	가/다	자연, 공학, 의학, 그룹
		나	의학
	강남대	나/다	공학
	대진대	가/나	자연공학
	상명대	나	자연과학
	서경대	다	자연과학, 공학
	서울교대	나	사범
	성신여대	가/나	간호, 글로벌의과학, 수학, 통계학
	수원대	나	그룹
3%	인하대	가/나	인문사회
15점	한성대	가/다	그룹(공학)